

1910년대 혁명적 독립운동단체 광복회 결성지

대구 달성공원

1910년 대한제국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 완전히 식민지화 되었다. 일제의 통치는 제국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혹한 식민지 지배방식이었다. 초법적 총독의 무단통치 하에서 독립운동은 크게 위축되어 암흑기를 맞이했고 침묵을 강요당했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 하에서 민족운동세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비밀결사의 조직이었다. 비밀결사는 국내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후 비밀결사는 3·1운동기는 물론 일제 패망 때까지 효과적인 투쟁수단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1910년대 비밀결사는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3·1운동과 그 이후 한국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간 주체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여러 비밀결사가 결성되고 활동하였는데 그중 광복회(光復會)가 가장 대표적이다. 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음력) 대구 달성공원에서 한말 의병계열과 계몽운동계열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였다. 그만큼 이념이나 투쟁 노선, 활동 지역 등이 다양했다. 이러한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넘어 광복회를 함께 결성할 수 있었던 구심력은 광복회 총사령이었던 박상진이었다. 박상진은 혁신 유림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스승 허위의 배움을 기반으로 투쟁노선과 이념을 달리한 세력들을 규합하여 광복회를 결성하였다.

광복회는 '독립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사관학교 설립과 군대 양성을 추진했다. 투쟁강령으로 무력 준비, 무관과 군인 양성, 무기 구입, 기관 설치, 행형부 조직, 무력전 단행을 내걸었고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다. 초기에는 일제가 거두어들인 세금을 탈취하기 위해 경주 광명리에서 우편 마차를 공격하거나, 일본인 소유의 운산금광 수송마차를 공격해 자금을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광복회 투쟁강령

- 무력준비
 - : 일반 부호의 의연과 일본인의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이로써 무장을 준비함
- 무관양성: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관으로 채용함
- 군인양성: 대한의 유력 의병, 해산군인 및 남북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 채용함
- 무기구입: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 구입함
- 기관설치
 - : 대한, 만주, 베이징, 상하이 등 요처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에 상덕태라는 상회의 본점을 두고 각지에 지점 및 여관 등은 鑛務所를 두어서 이로써 본 광복회의 군사행동의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기관으로 함
- 행형부
 - : 우리 광복회는 행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 고등관과 우리 한인의 반역분자는 수시수처 포살을 행함
- 무력전: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 완성을 기함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朴尙鎭, 1884~1921)광복회 충청지부장 김한중
(金漢鍾, 1883~1921)광복회 경상지부장 채기중
(蔡基中, 1873~1921)광복회 전라지부장 한훈
(韓煥, 1892~1950)

한편으로는 전국의 자산가에게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으나 자산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실제적 효과는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광복회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원활한 자금 모집을 위해 친일적 인물을 처단하는 의협투쟁을 전개했다. 1917년 11월 경상도 지부에서 친일부호 장승원을, 1918년 1월 충청도 지부에서 도고면장 박용하를 각각 처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통고문(通告文)

... 아(我) 조국(祖國)을 복(復)하고 아(我) 세수(世讐)를 척(斥)하고
우리동포(我 同胞)를 구(求)함은 실로 이(此) 우리민족(我 民族)의
천직(天職)으로서 우리(吾人)의 불가불위(不可不爲)의 의무이다.
이 본회(此 本會)가 성패(成敗)와 이룬(利屯)을 불고(不顧)하고자
죽음(死)를 무릅(冒)하여 이(此)를 창립(創立)하는 ...

그러나 이를 계기로 광복회원들이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광복회는 조직이 크게 와해되었다. 체포된 광복회원들 중 박상진·김한중·임세규·김경태·채기중이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에도 체포를 면한 광복회원들이 활동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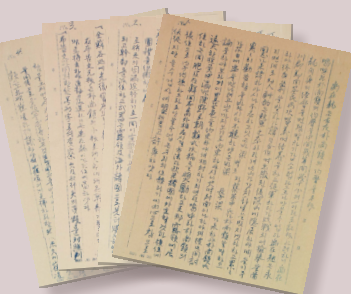
광복회는 국내 민족운동세력을 규합해 독립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단체였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단체로는 유일하게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의열투쟁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공백을 메우고 민족역량이 3·1운동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러한 활동과 의의를 지닌 광복회가 결성된 대구 달성공원은 1905년 11월 대구에 거주하던 일본거류민단이 일본의 국조신(國祖神)을 모신 요배전(遙拜殿)을 건립할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다. 대구의 일본인 사회는 요배전 건립 이후 1907년 3월 달성공원기성회를 조직하고 달성공원을 조직하였다. 국권 침탈 이후에는 1914년 일제가 대구 신사(神社)를 설치함으로써 조선의 지배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신사가 건립된 이듬해인 1915년 경북,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모여 광복회를 결성함으로써 달성공원의 의미는 일제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사에 기록되었다. 항일 독립전쟁과 국권 회복의 기치를 높인 곳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사적지 상세보기

박상진과 김한중의 광복회
활동 관련 판결문
(1920년 11월 4일, 경성고등법원)



박상진, 채기중과 함께
광복회를 조직하고 활동한
우재룡이 작성한 박상진의 약력
(독립기념관 소장)



일제강점기
달성공원 및 대구신사
전경을 담은 엽서

* 이성우, 『光復會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참고



현재 달성공원 전경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동 294-1)